본 문서는 PC환경에서 작성되었습니다. PC환경에서 열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
작가님, 작가님!

이렇게 연재하시면 저희 플랫폼도 곤란해요!

하나만 하세요. 로판이냐, 현판이냐, 동양풍이냐, 하나만 하시라니까요!

담당자님, 전 얘네 다 포기 못 해요…

이미 연재중인 세 작품인데, 그 중에 하나만 살리라구요?

말은 잘 알아들으셨네요.

뭘 하셔도 좋으니까. 하나만 하세요.

10일 드릴테니까 정리해서 오세요. 아시겠죠?

.

.

.

그렇게 서로 다른 세 세계는,

***하나로 합쳐질 위기*에 처한다.**

… 난 얘네 전부 포기 못 해.

그래…! *세계관 대통합 축제*다…!

캐릭터들끼리 경쟁하게 해서,

하나의 세계관에 모두를 통합해버리는거야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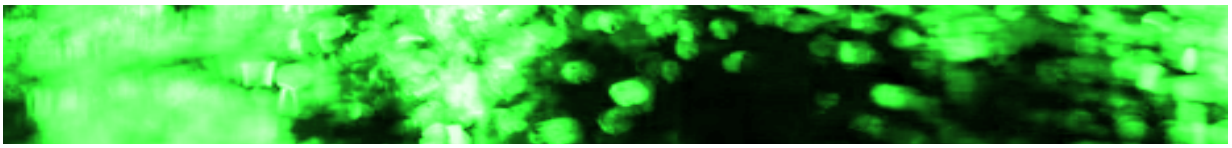
.

.

.

플랫폼, ‘GT series’에 연재중인

작가 ‘삥뽕’의 소설.



현대 판타지,

‘D급 헌터인 내가 신대륙의 구원자?’

로맨스 판타지,

‘엑스트라였는데요, 회귀자의 상담사가 되었습니다.’

동양풍 판타지,

‘신계탐방록’

각 장르의 *최하위권* 소설들.

각 소설들의 *운명*은 어떻게 될까…

.

관통제에 오신 것을

환 영 합 니 다 .

각 소설의 엑스트라, 조연, 혹은 *주연*인 여러분들은

세계관을 대표하여, ***관통제***에 참여하게 됩니다.

저는 가위바위보에 져서 안내를 담당하게 된

*천사, 안젤라*라고 합니다.

ㄴ 작가의 두 명의 오너캐 중 하나입니다.

여러분들의 세계관별 목표는,

'자신의 세계관으로 다른 세계관들을 통합하는 것'입니다.

뭐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거기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.

ㄴ 안젤라 일 제대로 안 할래?

ㄴ ㄴ 어쩔티비

知彼知己，百

戰不殆.

지피지기, 백전불태. 라고 하죠. 한자로 가오좀 부려봤습니다.

여러분들이 경쟁할 상대 정도는 알아야겠죠?

그럼 이제, 각각의 세계관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東方幻想

'신계탐방록'

-삥뽕

導入

아주 먼 옛날, 빛과 어둠이 뒤섞여있을 시기,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.
온갖 종족이 한데 모여 있었기에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.

그러던 중, 지금으로부터 대략 오천 년 전,
하늘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내려와 거대한 날개로 땅을 뒤덮으며 이야기했습니다.

더 이상의 전쟁은 무의미하다고.

용은 각자가 사는 공간을 나누어 통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.
용을 따르는 상서로운 존재들은 옳은 결정이라고 동의하고 나섰고,
긴 암흑기에 지친 인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 그 제안을 받아들으나,
탐욕과 광기에 물든 마족들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.

마족들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자,
용은 그들을 제압한 뒤 세상의 모든 혼탁한 것들과 함께 깊은 어둠 속에 봉인했습니다.
이후 용은 세계를 인간계와 신계로 나누고

영물들은 신계를,

인간들은 인간계를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.

…그런 얘기도 이제는 머나먼 전설이 된 지금, 이 세계는 평화롭습니다.
두 세계의 틈에서, 마족들 사이에 반란이니 전쟁이니 하는 이야기가 오간다고는 해도-
용의 존재 하에 오천 년 동안 이어진 평화는 그리 쉽게 깨지지 않겠죠.

…그런데, 평화로운 세계에,
다른 미지의 차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생겨났습니다.
인간계에 하나, 신계에 하나, 그리고 마계에도 하나.
어디로 이어지는지, 어째서 생기게 된 통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,
용은, 이 세계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모르는 그 통로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모양입니다.
인간계와 신계, 그리고 마계에까지-
용과 함께 통로 너머를 살펴보고 돌아올 이들을 모집한다는 방이 붙었고,
각각의 세계에서 지원한 이들을 모아 관통제에 참여하게 됩니다…

情報

-삼 년에 한 번씩, 신인제 (神人祭) 기간 동안에는
신계와 인간계가 이어져 열흘간의 축제가 열립니다.

-세계의 틈-편의상 '마계'로 칭하는 그곳-은 원래 다른 세계와 이어져 있지 않지만,
간혹 꼼수를 써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. 용에게 발각된다면 큰일나겠지만요.

<인간계>:
인간들을 비롯한 여러 동식물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. (지구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.)
국가: **영은국**(永恩國):
한 명의 왕이 통치하는 왕정. 왕족-귀족-평민-천민의 신분제.
과거시험과 무파도 존재합니다.
-**영사관**(永事館):
용이나 신계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. 영사관의 우두머리는 영사(永使)로 칭합니다.

<신계>:
온갖 영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. 신비로운 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.
-종족마다 한 명의 신관(神官)을 선출하고, 신관들이 모여 신계의 여러 규칙이나 업무를 논의.
-종족마다 생활 방식이나 통치 방식이 천차만별.

<마계>:
정확한 명칭은 '두 세계의 틈'. 탁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.
마족이 살고 있습니다.
-마계의 통치 방식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, 마계의 우두머리는 스스로를 '마신(魔神)'이라 칭하는 모양입니다.

-마족:
수많은 별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, 이들을 통틀어 '마족'이라 칭합니다.
사악하고 호전적이며, 대다수가 용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합니다.
일부 마족은 인간계나 신계로 넘어가서 그 세계의 일원인 척 살아가기도 합니다.